

元老科學技術者の證言

〈1〉

逆境을 헤치고 先驅者가 걸어온 醫學의 黎明期

— 下 —



尹 日 善 博 士 篇

光復 이후 醫學教育改編

1945년 8월 16일 감격스런 우리 韓民族의 宿願인 解放을 맞이했다. 그러나 社會의 모든 分野가 그러하듯 醫學界도 새로운 秩序를 찾고 陣痛期를 겪어야 했다.

제너럴 하지 中將을 선두로 9월 8일 仁川으로 進駐한 美軍은 軍政長官 아놀드 少將을 중심으로 9월 10일 學務局등 行政機構를 정식 발족시켰다. 그리고 教育擔當官에 라카드 大尉를 임명했다. 라카드는 入隊 前 시카고州의 어느 市立 初級大學에서 교편을 잡은 일이 있다 해서 教育擔當官에 임명되었다 한다.

라카드 美軍政教育擔當官은 金性達(初等教育分野) 玄相允(教育分野) 俞億兼(專門教育分野) 白樂濬(教育全般), 金活蘭(一般教育) 등 7人の 教育諮問委員團의 助力을 받아 새 教育理念과 制度를 마련해 갔다. 나는 해방 후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하루는 美軍政으로부터 京城大學醫學部를 접수하라는 통지가 왔다.

그래서 나는 醫學部에 나가 日本人 教授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정식 事務引繼를 받고 醫學部長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나는 京城大學醫學部를 접수한 후 무엇보다 빠른 時日 안에 學業을 再開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時間表를 짜고 講義準備을 하는 한편 學生들을 불러 모아 講義가 가능한 學科부터 서서히 開講했다. 그때 京城大學醫學部長은 나였고 法文學部長은 白樂濬씨 理工學部長은 崔奎南씨였는데 얼마 안있다가 李泰圭씨로 바뀌었다. 이때 美軍政醫學教育 顧問으로부터 京城大學醫學부와 京城醫學專門學校가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統合論이 대두되어 오던 중 드디어 1946년 8월 23일 國立 서울大學校로 정식 출범.

이날 軍政長官 러치는 國立서울大學校 설립에 관한 法令인 이른바 軍政法令 第102號를 公告했다. 이에 따라 京城大·京城經專·京城齒專·京城法專·京城醫專·京城鎖專·京城師範·京城工專·京城女師·水原農專 등 10個校가 統合, 國立 서울大學校로 되면서 醫大·法大·工大·齒大·商大·師大·文理大·藝術大·農林大등 9개 單科大學과 大學院을 산하에 두게 되었다.

特別企劃

나는 京城大學이 國立 서울大學으로 되기까지 거의 매일 文敎部와 保健厚生部의 각종 委員會에 참석해야 했다. 美軍政廳 學務局 朝鮮敎育委員을 비롯해서 醫務敎育審査會委員·保健厚生部 顧問·文敎部高等教育委員 등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文敎部長은 兪億兼씨, 保健厚生部長은 李容高씨, 次長엔 崔昌濟씨가 맡고 있었다.

내가 주로 關與한 일은 文敎部에서는 各급 학교 교장을 심사 임명하고, 保健厚生部에서는 海外에서 돌아오는 醫師들에게 資格을 주기 위한 특별시험과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었다.

醫 學 團 體

한편 해방이 되자 국내 開業醫와 醫大 敎授를 중심으로 모임체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해방 후 韓國人醫師들의 모임체가 발족된 것은 1945년 8월 17일, 이날 國內 開業醫 4백여명이 서울 微文中學 강당에 모여 전국 규모의 建國 醫師會를 조직했다.

建國 醫師會는 위원장에 李容高씨, 총무위원에 金晟鎭씨, 재무위원에 高永洵씨, 서무위원에 任明宰씨를 각각 선임했다. 또한 그해 醫大敎授들이 중심이 된 「朝鮮醫學研究會」가 서울 禱松國民學校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나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해방 이후 혼란기에 의사 전체가 이같이 양립된 것은 확실히 잘못된 일이었다. 잘못하다간 醫療界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뜻 있는 醫療人들이 중심이 되어 두 단체의 통합운동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두 단체를 포함하기 위한 첫모임이 그 해 12월 9일에 열렸다. 그리고 1946년 5월 25일 서울 醫大 講堂에서 통합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당시 경치사회의 혼란은 이를 流會시켰으나 그 뒤로 통합열의가 높아 1947년 4월 7일 醫師團體中央會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 이를 뒤인 4월 9일 전국 규모의 單一醫師團體를 창립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1947년 5월 10일 전국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의대 강당에서 마침내 朝鮮醫學協會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沈浩燮씨, 부회장에 金鳴善씨, 崔相彩씨를 각각 선임하는 한편 회칙도 마련했다. 이것이 오늘의 大韓醫學協會의 기틀이 된다.

朝鮮醫學協會는 그해 9월 3일 徐載弼박사 환국 축하회를 열고 최초의 명예회원으로 추대하는 한편 10월 31일엔 첫 임시총회를 열어 醫療法제정과 마약취체령의 改正을 美軍政廳 保健厚生部에 건의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8년 1월 15일 朝鮮醫學協會는 美軍政廳 保健厚生部로부터 中央醫師團體로 공식 인가를 받고 그해 5월 10일자로 창간호 「朝鮮醫學協會報」를 발간했다.

朝鮮醫學協會는 같은 해 8월 15일 大韓民國政府수립에 따라 명칭 大韓醫學協會로 개칭했다.

나는 1948년 5월 1일 朝鮮醫學協會 2차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되었다. 그래서 내가 회장 재임시에 오늘의 大韓醫學協會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나는 1952년 4월 30일까지 2,3대에 걸쳐 大韓醫學協會 회장을 맡아 보았다.

癌 研 究

(肉腫發見으로 論爭)

내 이야기에 앞서 당시 癌研究의 世界的 추세 즉 癌研究의 歷史를 살펴 본다.

1911년 家鷄肉腫을 세계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美國 록펠러에 있는 람스와 日本 후지나기敎授이다. 보통 細菌은 細胞外에서 人工으로 培養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細胞內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알아낼 수 없었으나 람스, 후지나기 이들 두 敎授가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癌研究의 시초가 되어 그 뒤 여러 學者들에 의해 동물을 이용한 癌發生의 自然的 環境要因도 발견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日本 東京帝國大와 京都帝國大學 敎授들간의 입씨름은 대단했다. 東京帝國大學 病理學敎室 나가이 敎授는 獨逸일호의 學說을 들어 細胞없이 癌은 發生하지 않는다고 하여 후지나기 敎授 주장에 반기를 들고 나오고 京都帝

國大 후지나기 教授는 각종 實驗으로 이에 對應했다.

후지나기 教授는 實驗을 통해 肉腫을 가진 닭의 血液은 물론 피를 채취 다른 닭에 注射해도 肉腫이 발생하고 尿 또는 唾液(침)만을 주사해도 肉腫이 생겼다고 했다. 이밖에 후지나기 教授는 細胞를 못나오게 하는 濾過器에 거른 液體만 注射해도 肉腫이 나타났다고 주장, 細胞 없이는 肉腫이 발생할 수 없다는 東京大派를 論駁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그치지 않고 20여년 동안 계속 매년 열리는 日本病理學會 總會 때마다 재현되었다.

람스·후지나기 教授에 이어 1914년 후지가와 教授가 자기 귀에다 石炭타르를 3년반 동안 발라본 결과 化學作用으로 인한 癌이 발생, 이를 世界 癌學會에 발표하여 크게 주목을 끌었다. 이에 따라 世界癌研究學者들은 콜타르를 바르면 癌이 생기는 事實은 알게 되었으나 콜타르속에 어떤 化學物質이 들어 있어 癌이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問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日本 病理學者 요시다 살코마스는 1929년경 英國에 건너가서 그곳 化學者들과 공동 실험한 결과 콜타르 속에서 디벤젠안트라센과 벤스바이린을 찾아내 癌研究의 劃期的인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같이 世界 碩學들의 癌研究가 활발하던 때 나는 日本서 癌腫을

떼어 말린 후 가루로 만든 다음 生理的 食鹽水에 혼합 굵은 주사침을 이용하여 실험하기도 하고 學術院서 나온 3千圓의 연구비로 機械를 購入·癌의 발육 등 옷사람들이 하라는대로 소극적인 연구에 그쳤다.

그 후 내가 본격적으로 癌研究에 몰입한 것은 1929~1932년 세브란스醫專에 몸담고 있을 때이다. 그때부터 나는 癌研究테마를 직접 정하고 쥐를 이용한 發癌性物質과 發癌色素 연구에 몰두했다. 특히 내가 過敏性疾患과 惡性腫瘍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던 어느 날이다.

木下 教授가 흰쥐에 디메틸 안드레센을 投與, 肝臟癌을 발생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木下의 연락처 九州帝大病理學教室로 같은 연구를 하고 싶으니 發癌物質이 있으면 좀 얻을 수 없겠는가고 문의편지를 띄웠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하는수없이 나는 有機化學책을 뒤져 디벤젠 안트라센과 유사한 디벤젠 한트라퀴논이란 물질을 찾아내 獨逸化學藥品會社에 직접 주문했다. 얼마 후 研究에 충분한 量의 디벤젠 안트라퀴논이 도착했다. 나는 이 物質로 癌腫을 만들어 불참이었다. 그래서 나는 당시 세브란스醫專 조수들과 실험에 착수, 마침내 토끼의 胃에 癌腫을 만들어 보는데 성공했다. 이같은 研究 結果는 1943년 日本病理學會에서 발표되었다.

